



택함을 입은 자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마 22:14).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올 수는 있으나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눈에는 그것이 잘 안 보이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보혈에 적셔지지 않은 사람이 보입니다.

예복을 입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흘려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구원을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하고 받는 것입니다.

능력은 어떤 힘이 아니라 내 안에 죄가 깨어지고
내 안에 더러움이 사라지고 내 안에 모든 사탄의 세력이
사라질 때 그것이 바로 능력인 것입니다.

죄가 사라지는 것이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받은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그를 통하여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으나 택함을 받은 사람은 적고
교회에 오는 사람은 많으나 보혈을 경험한 사람이
적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 하용조